

“ 주께서 아시는가? ”

■ 이종윤 원로목사

“저희가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호 8:4)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속에서 끝없이 일어나고 있다.

첫째, 주님께 묻지 않고 하는 모든 일은 주님의 아실 바 아니다.

부모를 모시고 사는 자녀는 밖에 나갈 때와 귀가할 때 반드시 복명하는 것이 효도의 자세다. 만일 자녀가 그의 하려고 하는 일과 또 하고 있는 일을 부모에게 고하지 아니하면, 부모가 이를 알 수 없으며, 알아도 아는 체 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과 그의 자녀 사이에도 적용되는 원리다.

사울왕의 패인은 그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윗왕의 승리의 비결은 매사에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잘 했다는 것이다.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는 것은 일종의 하나님 모독 행위다.

설령 세상에서 원하는 일들이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모르시는 성공이라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축복이 될 수 없다.

둘째, 주님의 허락 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일은 주님의 아실 바 아니다.

물음과 허락은 다르다. 그러므로 주님께 물은 일이라고 해서 허락받지 못한 일은 함부로 손대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 물음이란 것은 통고와 달라서 상대방의 대답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께 기도로 물은 일이라고 그의 허락 여부에 따라 행동해야지 아직 허락 받지 않은 일을 일방적으로 믿고 나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거역이 될 뿐이다. 사도 바울은 전도까지도 주의 허락 여부에 따랐으며(행 16:6) 다윗왕은 성전을 세우는 일까지도 하나님의 지시 여하에 따랐다.(대상 17:4) 주님을 위해 좋은 일이니까 물론 허락하시겠지 하고 속단하는 것은 탈선을 범하게 된다. 좋은 일이라고 다 주님을 위한 일이 아니며, 주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비록 더디더라도 주의 허락을 기다려서 행동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해 놓은 일이란 마치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이 낳은 것 같아서, 주의 아실 바가 못 되며, 그러기에 우리에게도 결코 행복스런 일도 못된다.

셋째, 주님의 방법대로 되지 않는 일은 주님의 아실 바 아니다.

하나님께 묻고 또 허락은 받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 일이 주님의 방법(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는 준공검사에서 합격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께 물은 일ियो 또 허락 받은 일이라고 하면, 그 일을 추진하는 방법도 주님의 방법대로 해야 한다. 문제는 무엇을 했느냐보다 어떻게 했느냐에 있다. 도대체 세속적 방법에 의한 교회 사업이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위한다는 명분 아래 주님의 방법 아닌 것들이 너무 난무하는 세상이다. 우리는 단순한 호사가가 아니라 주님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일어서서 두 손을 펴들고 기도하기를 좋아했다. 그것은 기도의 자세로 나쁘지는 않으나 그 손이 거룩한 손이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강조한다.

뒷면으로 계속 ⇨

앞면에서 계속

거룩한 손이란 피 묻지 않은 깨끗한 손이어야 한다. 구제의 손이어야 하고, 주는 손이 되어 형제의 발을 씻겨주는 겸손한 마음과 남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이타심(利他心)이 있어야 한다. 기도가 열납되는 시간에 드리는 기도가 주께서 아시는 바다. 정성과 감사와 간절을 담은 새벽에 드리는 기도다. 핍박받는 시간에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신다. 부모가 자식이 병중에 있거나 환난을 만났을 때 측은지심으로 그의 요구를 들어 주듯이 하나님도 성도가 환난 중에 공황을 쏟으신다. 하물며 그 환난이 주를 위해 받는 환란임이라! 회개하는 시간을 주님은 열납하신다. “저는 죄인입니다” 한 세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신다. 오늘도 주님이 아시는 성도가 되고 주님이 열납하시는 기도의 사람이 되자.

-한국장로신문 [제 1575호] 2017년 12월 16일 발채-

English Worship Service	
[Room 802, 11:20 am]	[Presider : Deacon Kichan Yoo] [Preacher : Pastor Euichang Kim]
* Call to Worship	John 4:24 Presider
* The Apostles' Creed	Congregation
* Doxology	1 Congregation
Congregational Prayer	Sister Lumie Hwang
Hymn	2 Congregation
Scripture Reading	Mark 8:31-35 Presider
Welcome/Fellowship	Congregation
Offering	Congregation
* Offering Hymn	50 Congregation
* Offering Prayer	Presider
Anthem	Congregation
Sermon	“Peter's Position” Pastor
* Hymn	484 (Be Thou My Vision) Congregation
* Benediction	Pastor
* Lord's Prayer Song	635 Congregation
(* Please stand if you are available)	

<p style="text-align: center;">우리의 비전 (vision)</p>	<p>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교회 QR코드</p>
---	--	--

<p>부 목 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p> <p>교육전도사 김은숙 박미라 최승원</p> <p>선 교 사 강아급주하나, 전광혜(서아시아), 이은준강해정, 양재성이현주, 비컨잔(카자흐스탄) 스브로토바로이, 조남혜, (방글라데시), 이재을박병진(캄보디아), 전호진(미얀마), 조병연김희정, 우상식김정옥, 이삭, 비스타파, 사지, 애녹(인도), 정상진홍성임(필리우),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이재훈박재연(마다가스카르), 김용진황경혜(말라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허창범현미순(일본), 김낙형 - 오정녀(케냐), 김종일백순미(타키노동자), 필리몬, 프로산도, 수례시, 수바스, 이경림, 알로롱, 비사누보도, 보디소프, 린룸, 수린존(방글라데시), 김태식, 윤영모, 이금순, 김명일, 김력수(군선교)</p>	<p style="text-align: center;">협동목사 김의창 심우진 전재홍</p>
---	--

	<p>천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p> <p>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p> <p>SEOUL PRESBYTERIAN CHURCH</p> <p>원로목사 이 종 윤 Emeritus Pastor Lee Jong-Yun, Ph. D., D.D., D. D.</p>
	<p>135-835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210 Tel.558-1106 / Fax.558-2107 210 Daechi-dong Gangnam-gu Seoul, Korea http://www.iseoulchurch.or.kr/</p>

“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

■ 요 10:27-28

본문은 주님을 목자, 성도는 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양은 목자를 의지할 때만 안전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도는 주님의 손에 붙잡혀 보호받고, 주님의 가슴에 기대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주님의 발치에 앉아 친밀히 예배하고, 주님의 어깨에 무등을 타고 주님의 통치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1. 주님의 손에 붙들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요 10:28). 베드로는 이 말씀의 의미를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이른 새벽, 제자들을 향해 물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용기를 내어 물위를 걸어가다가 이내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며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의 손을 붙잡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며 베드로를 배 위로 끌어올리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나 허우적거릴 때 주님은 손을 내밀어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서 개입하실 때, 죽음은 생명으로, 불가능은 가능으로,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주님 손에 붙들려 있음을 확인하는 성도는 어떤 고난과 역경과 고통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내 뜻이 좌절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내 손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의 손을 의지하십시오.

2. 주님의 품에 기대어

“그는 목자 같이 양 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사 40:11). 주님의 품은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곳입니다. 주님의 품은 지혜와 지식의 보물창고를 상징합니다. 주님의 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수받습니다. 율법학자, 바리새파는 율법을 머리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으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가르치고자 하셨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가슴으로 읽지 못하면 결국에는 율법주의만 남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가슴에 기대어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3. 주님의 발치에 앉아

주님을 진실로 의지한다는 것은 진정으로 예배하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친밀한 교제와 예배가 일어나는 곳을 주님의 발치라고 합니다.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었드려 예배하리이다” (132:7), “내가 그 발 앞에 었드려 경배하려 하니” (계 19:10). 주님의 발 아래는 예배의 장소입니다. 주님의 발 아래는 또한 고침을 받는 곳이기도 합니다.(마 15:30) 주님의 손에 붙들리어 보호를 받는 성도는 주님의 품에 의지하여 배우고, 주님의 발 아래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주님의 어깨에 기대어 주님의 통치, 주님의 승리를 경험합니다.

4. 주님의 어깨에 앉아

예수님은 사탄이 유인해 길 잃어버린 양을 찾아 어깨에 메고 기뻐하며 돌아오는 참 목자이십니다. 잃은 양을 찾아 데리고 오는 목자의 기쁨을 누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눅 15:5). “베나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와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리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이다” (신 33:12). 하나님께서 베나민 지파를 보호하시는데, 마치 아버지가 자녀 목마를 태워주듯이 어깨 사이에 품고, 업고, 무등을 태우십니다.

맺는 말

주님의 손에 붙들려 주님의 손이 되고, 주님 품에 안겨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주님 발치에 앉아 그 무엇에도 방해받지 않는 신령한 교제를 나누고, 주님 어깨에 앉아 주님의 승리, 주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주 장석남 목사 설교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찬 양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오후 5시	인도 조원영 목사, 설교 이종운 원로목사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esider	Prayer		
I 오전 9시	조원영 목사	이계홍 장로	목 도	다 함 께
II 오전 11시 20분	조원영 목사	최광성 장로	성 시 시 37:1-3	인 도 자
III 오후 2시	서명철 목사	양춘경 장로	찬 송 66(20)	다 함 께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기 도	김광태 집사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시 119:9-11...	인 도 자	성 경 계22:6-21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세례식	이종운 목사
* 찬 송 Hymn2(6).....	다 함 께	찬 양	찬 양 대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함 께	설 교 "마라나 타"	설 교 자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54(시 126)...	다 함 께	(μαρανα θα)	
* 송 영 Doxology	다 함 께	* 찬 송 384(434)	다 함 께
기 도 Prayer	말 은 이	* 축 도	설 교 자
찬 송 Hymn260(194)...	다 함 께	* 주기도송	다 함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마 7:21...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함 께		
봉헌 Offering	다 함 께		
* 봉헌송 Offering Hymn634(70) ...	다 함 께	오후 7시	· 인도, 설교: 서명철 목사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 도 자	기 도	석춘희 권사
찬 양 Anthem	찬 양 대	성 경 호 2:14-23	인 도 자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함 께	찬 양	찬 양 대
설 교 Sermon“천국의 리허설”...	장석남 목사	설 교 ... "거친 들로 가서 위로하라" ...	설 교 자
(Rehearsal for Heaven)			
* 찬 송 Hymn	다 함 께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함 께		

수 요 예 배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설 교 장석남 목사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본당 피아니스트: 홍해란,김양원,박수강,김복환

설 교 장석남 목사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11시20분	8층(802호)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본당

교 회 소 식

◆ 모 임

- 권사회 8월 모임 / 26일(주) 오후3시 30분 101호(웨스트민스터홀)
- 스데반회 9월 월례회 및 교회 청소 / 9월1일(토) 오후3시 101호(웨스트민스터홀)

◆ 알 림

- 101호 예배 및 부서 모임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9시-10시 / 신앙강좌부: 주일 오후 12시40분
사랑부 예배: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 403호 예배
영아부: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 602호 부서 모임
청년2부(다락방모임):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새가족부: 주일 오전 10시20분
- 603호 부서 모임
소망부: 주일 오전 10시-11시, 오후 1시-2시 / 청년1부(다락방모임):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609호
에바다부 성경공부: 주일 오후 1시-2시30분
- 701호 예배
유초등부 연합 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706호 예배
유아, 유치부 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802호 예배
영어예배부: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902호
디아스포라부 성경공부: 주일 오후 1시-2시
- 금주 수요일예배는 오후 7시, 101호에서 한 번 드립니다.
- 세례식 실시 / 8월 세례식이 금일 26일(주) 저녁 찬양 예배 시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임승한 집사(010-7743-3223)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면에서 계속
13. 의료 상담 / 이번주 상담은 정현구(치과), 이경진(성형외과)입니다. 주일 오전 10시10분 - 오전11시까지 다음주 상담은 김봉배(통증의학), 이종욱(진검)입니다. 1층 서적부에서 의료 상담을 합니다. * 전화 예약 010-8993-5558
14. 상담 안내 / 법률, 세무, 가정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10시30분-오후 4시 (310호) * 전화 예약 010-2376-3892

지난주 출석현황

주일1,2,3부	찬양예배	교회학교	주일예배 합계	수요일예배
835명	203명	199명	1,237명	135명

수입, 지출 내역보고(8/19)

(단위 : ₩)

월 일	적 요	수 입	지 출
8월 19일	헌 금	22,797,700	
"	선 교 비		800,000
	구 제 비		400,000
	출 판 비		250,000
"	복리후생비		117,200
	통 신 비		965,603
	차량유지비		1,557,920
	소모품비		173,580
	수선유지비		165,000
	식당운영비		1,671,060
	합 계	22,797,700	6,100,363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헌 금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 부	가브리엘	백경화	김현정11	박승기	윤주일	가브리엘		
II 부	할렐루야	류충기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앤드벨	송재월	
III 부	임마누엘	유태왕	김예지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임범창	안효주	박수강	윤주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 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 앗을 자가 없느니라 (요 10:28)		
영어예배	예루살렘				지난주			
수요 I 부					성구			
수요 II 부	시 온	최유현	김예지	조현정				